

1. 증권산업

〈글로벌동향〉

- 2017년 3/4분기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수료수익은 전분기수준 유지
- 2017년 3/4분기중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영업수익은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순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은 증가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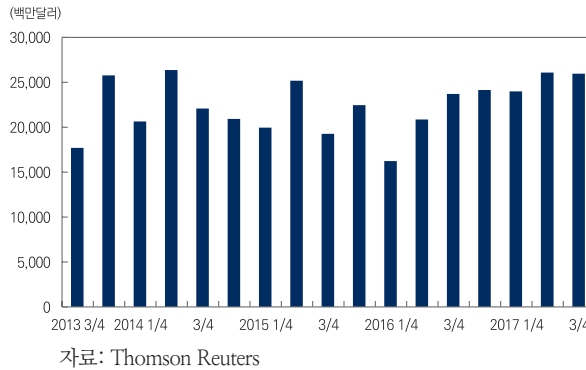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총계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금조달·운용규모는 감소
- 2017년 3/4분기중 투자은행 및 자기매매 부문의 실적 둔화로 순영업수익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외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증가

가. 글로벌동향

1)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익 현황

- 2017년 3/4분기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수료수익은 전분기수준 유지
 -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수료수익은 동분기 260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9.6% 증가
 - 2016년 2/4분기 이후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분기 상승폭은 둔화
 - 동분기 수수료수익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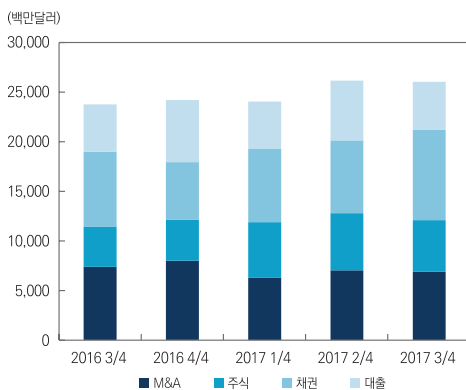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수료수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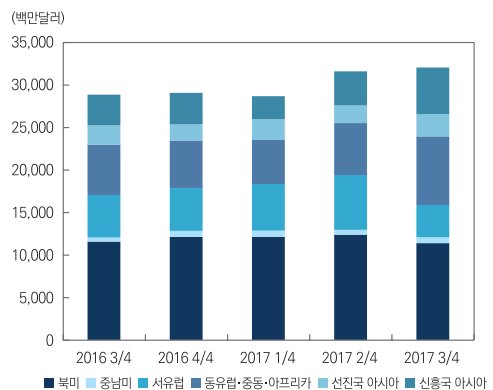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중 상품별 수수료수익은 채권인수 부문을 제외한 전 상품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신디케이트론 부문이 크게 하락

- 동분기중 상품 기준 수수료수익은 채권인수 수수료 90.7억달러, M&A 수수료 68.7억달러, 주식인수 수수료 52억달러, 신디케이트론 수수료 48.7억달러 순
- 채권인수 수수료는(24.0%)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신디케이트론 수수료(19.2%), 주식인수 수수료(10.0%), M&A 수수료(1.9%)는 감소
- 전년동기대비 주식인수 수수료(27.7%), 채권인수 수수료(20.2%), 신디케이트론 수수료(2.1%)는 증가한 반면 M&A 수수료(6.5%)는 감소

상품별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수료수익 추이



지역별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수료수익 추이



□ 2017년 3/4분기중 지역별 수수료수익은 신흥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

- 동분기중 지역 기준 수수료수익은 북미 114억달러, 신흥국 아시아 54.8억달러, 서유럽 38.2억달러, 중남미 7억달러, 동유럽·중동·아프리카 5.4억달러 순
- 신흥국 아시아(36.3%), 선진국 아시아(24.9%), 중남미(21.7%) 지역 수수료는 전분기 대비 증가한 반면, 서유럽(40.9%), 동유럽·중동·아프리카(26.4%), 북미(8.1%) 지역 수수료는 감소
- 전년동기대비 신흥국 아시아(51.4%), 중남미(39.3%), 선진국 아시아(13.8%) 지역 수수료는 증가한 반면, 동유럽·중동·아프리카(26.5%), 서유럽(23.7%), 북미(1.6%) 지역 수수료는 감소

2)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영업 현황

□ 2017년 3/4분기중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영업수익은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순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은 증가

-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영업수익은 2017년 3/4분기 761.7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8.9%, 전년동기대비 6.1% 감소
- 2017년 3/4분기중 영업비용은 499.3억달러로 전분기대비 2.1%, 전년동기대비 0.5% 감소
 - 순영업수익은 262.4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19.5%, 전년동기대비 15.3% 감소
-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당기순이익은 동기간 중 200.8억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
 - 당기순이익은 전분기대비 1.4% 증가
 - ROE는 전분기와 동일하며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손익현황 (2017년 3/4분기 기준)

(단위: 백만달러, %, %p)

	JP Morgan Chase	Goldman Sachs	BoA	Morgan Stanley	Citi	계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영업수익 (A)	25,326	8,326	21,839	9,197	11,479	76,167	-8.9	-6.1
영업비용 (B)	14,318	5,350	13,139	6,715	10,404	49,926	-2.1	-0.5
순영업수익 (C)	11,008	2,976	8,700	2,482	1,075	26,241	-19.5	-15.3
당기순이익 (D)	6,732	2,128	5,587	1,791	3,840	20,078	2.7	3.2
순이익률 (=D/A)	26.6	25.6	25.6	19.5	33.5	26.4	-4.6	-3.7
영업이익률 (=C/A)	43.5	35.7	39.8	27.0	9.4	34.5	-11.7	-9.7
자본총액 (E)	232,314	75,089	249,624	78,978	208,381	844,386	0.1	0.8
ROE	2.9	2.8	2.3	2.3	1.8	2.4	0.0	0.1

주 : 영업수익 = 비이자영업수입 + 순이자수입(= 이자수입 - 이자비용), 영업비용 = 비이자영업비용, 순영업수익 = 영업수익 -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 순영업수익 - 대손상각 - 법인세 지급, ROE = 당기순이익/전분기 및 당기 평균자본총액

자료: 각사 10K, 10Q 보고서

연구위원 장정모 (02-3771-0621, changjm@kcmi.re.kr)

연구원 여밀림 (02-3771-0835, mlyeo@kcmi.re.kr)

나. 국내동향

1) 일반현황

□ 2017년 3/4분기말 국내 증권사는 총 55개사이며, 총임직원수는 35,639명, 국내점포와 해외점포는 각각 1,127개와 58개임

-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법인과 국내지점이 신설되어 국내 증권사 수는 전분기말 53개사에서 동분기말 55개사로 증가
 - 중국 초상증권주식회사와 일본 미즈호증권 서울지점이 신설
- 동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총임직원수는 35,639명으로 전분기대비 0.1% 증가
- 국내점포는 전분기대비 1.1% 감소, 해외점포는 전분기대비 1.8% 증가

국내 증권사 수, 인력 및 점포수 현황

(단위: 개, 명)

	2016년		2017년			증감	
	3/4	4/4	1/4	2/4	3/4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권사수	55	53	53	53	55	2	0
국내법인	45	43	43	43	44	1	-1
국내지점	10	10	10	10	11	1	1
총임직원수	35,876	35,657	35,680	35,593	35,639	46	-237
국내점포	1,178	1,160	1,142	1,139	1,127	-12	-51
해외점포	62	59	57	57	58	1	-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재무현황

□ 2017년 3/4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총계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금조달·운용규모는 감소

- 3/4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총계는 전분기대비 1.2% 증가한 51.5조원을 기록
 - 이익잉여금이 전분기대비 4.1%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
- 채권 자산을 통한 자금 운용의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4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2% 감소한 391.7조원을 기록

- 파생상품 및 기타자산은 전분기대비 4.7% 감소한 87.9조원, 채권자산은 전분기대비 1.8% 감소한 180.3조원을 기록
- 총자산에서 채권 자산의 비중은 46.0%로 전분기대비 0.1%p 증가
- 매도파생결합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소폭 감소하면서 동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2.6% 감소한 340.2조원을 기록
- 매도파생결합증권은 전분기대비 7.0% 감소한 95.0조원, 파생상품 및 기타 부채는 전분기대비 7.4% 감소한 47.9조원을 기록
- 총부채에서 RP매도 비중은 31.0%로 전분기대비 0.6%p 증가한 반면, 매도파생결합증권의 비중은 27.9%로 전분기대비 1.3%p 감소

국내 증권사 재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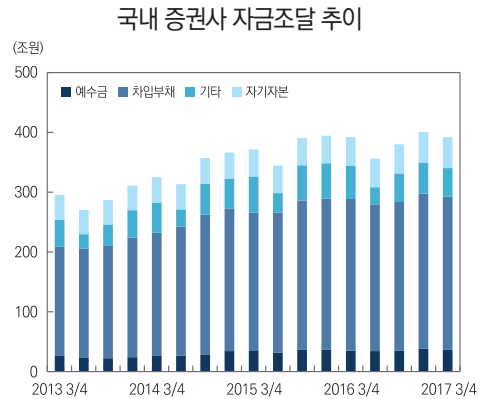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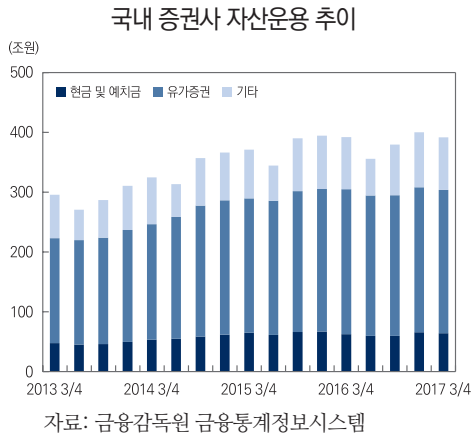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6년		2017년				
	3/4	4/4	1/4	2/4	3/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총자산	392.0	356.0	379.8	400.3	391.7	-2.2	-0.1
현금 및 예치금	62.2	59.7	59.6	65.5	63.9	-2.3	2.8
증권	242.8	234.8	235.5	242.6	239.9	-1.1	-1.2
주식	17.8	19.5	16.3	18.7	19.5	3.9	9.1
채권	187.1	177.3	181.8	183.7	180.3	-1.8	-3.6
파생상품 및 기타	87.0	61.5	84.7	92.2	87.9	-4.7	1.0
총부채	344.6	308.2	331.6	349.5	340.2	-2.6	-1.3
예수	35.5	34.6	35.0	38.6	37.1	-3.8	4.5
차입	253.1	245.1	248.8	259.2	255.2	-1.5	0.8
RP매도	110.4	100.6	103.5	106.2	105.5	-0.6	-4.4
매도파생결합증권	98.8	100.8	98.9	102.2	95.0	-7.0	-3.9
파생상품 및 기타	56.0	28.6	47.7	51.7	47.9	-7.4	-14.5
자기자본	47.4	47.7	48.2	50.9	51.5	1.2	8.6

주 : 1) 주식 및 출자금: 주식 + 신주인수권증서 + 외화주식

2) 채권: 국채 + 지방채 + 특수채 + 회사채 + 외화채권

자료: 금융투자협회



3) 손익현황

□ 2017년 3/4분기중 투자은행과 자기매매 부문의 실적 둔화로 순영업수익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외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증가

- 동분기중 국내 증권사 순영업수익은 3조 1,197원으로 전분기대비 5.3% 감소
- 당기순이익은 1조 134억원으로 영업외수익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는 2.0%로 전분기대비 0.1%p 증가
- 전분기대비 파생상품 관련 손실폭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펀드 및 외환 관련 순수익이 감소하여, 자기매매 순수익은 전분기대비 11.1% 감소한 8,937억원을 기록
 - 파생상품 관련 순이익은 -1,260억원으로 전분기대비(-8,801억원) 증가, 이는 파생 결합증권의 조기상환 및 파생상품거래·평가이익 증가에 기인
 - 반면, 채권 관련 순이익은 6,786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7.7% 감소, 주식 관련 순이익은 2,574억원으로 55.3% 감소, 펀드 관련 순이익은 1,767억원으로 55.3% 감소, 외환 관련 순이익은 1,363억원으로 57.6% 감소

국내 증권사 손익현황

(단위: 억원, %, %p)

	2016년		2017년			증감율	
	3/4	4/4	1/4	2/4	3/4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순영업수익	25,470	23,019	30,967	32,959	31,197	-5.3	22.5
위탁매매	12,134	10,831	11,328	12,753	12,734	-0.2	4.9
투자은행	3,505	3,883	3,647	5,406	4,556	-15.7	30.0
자산관리	1,086	1,070	998	1,000	1,029	2.9	-5.3
상품판매	1,180	1,015	1,059	1,189	1,266	6.5	7.3
자기매매	6,043	3,535	11,753	10,050	8,937	-11.1	47.9
기타	1,522	2,674	2,181	2,562	2,676	4.5	75.9
판매관리비	18,011	18,596	18,796	20,127	19,545	-2.9	8.5
인건비	11,136	11,500	12,037	13,173	12,595	-4.4	13.1
영업이익	7,460	3,510	12,172	12,833	11,652	-9.2	56.2
당기순이익	5,744	3,375	9,730	9,446	10,134	7.3	76.4
자기자본이익률(ROE)	1.2	0.7	2.0	1.9	2.0	0.1	0.8

주 : 1) 순영업수익 = 영업수익 - (판매비와 관리비 제외 영업비용)

2)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중단사업손익

3) 위탁매매 = 수탁수수료 + 송금수수료 손익 + 신용공여·증금예치금·미수금이자 + 차주매각대금이용료 - 매매수수료 - 투자상담사수수료 - 송금수수료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 투자자예탁금이용료 + 별도예치금평가손익

4) 투자은행 = 인수주선수수료 + 사채모집수탁수수료 + 어음지급보증료 + 매수 및 합병수수료 + 대지급금이자 + 지급보증료

5) 자산관리 = 자산관리수수료 + 신탁보수 - 투자자문 및 일임수수료

6) 상품판매 =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 파생결합증권판매수수료 + CMA운용수익(종금계정) + CMA운용수수료(종금계정) - CMA수탁금이자(종금계정)

7) 자기매매 = 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 파생상품 관련손익 + 대출채권관련 손익 + 외환거래손익 + 배당금 및 분배금 수익 + 일반상품 처분 및 평가손익 + 기타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이익 + 양도성예금증서거래손익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환입·전입 + 채권·어음 등 관련 이자손익

8) 기타 = 대리업무보수 + 리스손익(종금계정) + 채무보증·복구충당부채·신탁위험충당금 환입 및 전입액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기타수수료 비용 - 요구불상환지분 관련이자 - 기타대손상각비 - 기타

9) 2016년 4/4분기 손익은 2016년 12월 30일 피합병된 미래에셋증권의 손익 및 합병법인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추정 손익을 합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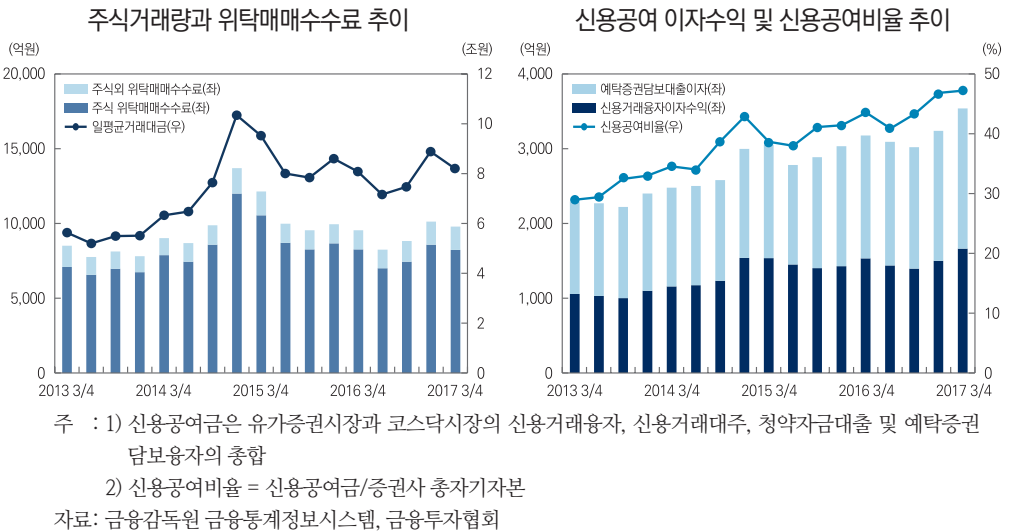
10) 기존 투자은행 부문 순이익 산출 항목 중 1) 매입대출채권·대출금·대출채권이자, 2) 채무보증충당금·기타대손충당금환입 및 전입액, 3) 리스손익(종금계정), 4) 대출평가 및 처분손실, 5) 기타대손상각비는 기타 부문 순이익의 항목으로 편입(2018년 봄호부터 적용)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위탁매매) 2017년 3/4분기중 일평균거래대금의 감소로 주식 위탁매매수수료는 감소한 반면, 증권사 신용공여비율의 증가로 신용공여 이자수익은 증가

— 3/4분기중 일평균거래대금은 8.2조원으로 전분기대비 7.3% 감소하고,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는 8,23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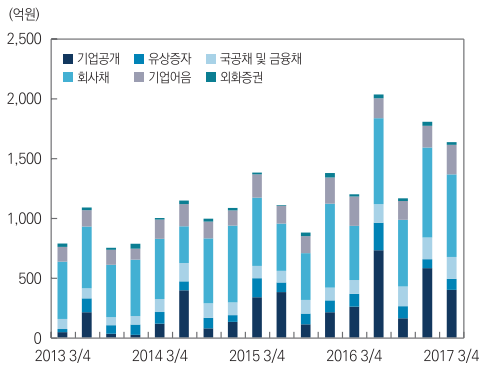
- 주식외 위탁매매수수료는 1,566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3% 증가
- 신용공여비율은 47.1%으로 전분기대비 0.5%p 증가하고, 신용공여 이자수익은 3,577억원으로 전분기대비 9.3% 증가
 - 동분기중 신용공여금은 24.2조원으로 전분기대비 1.7% 증가
 - 신용거래용자이자수익은 1,66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1.0% 증가하였고, 예탁증권 담보대출이자 1,87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7.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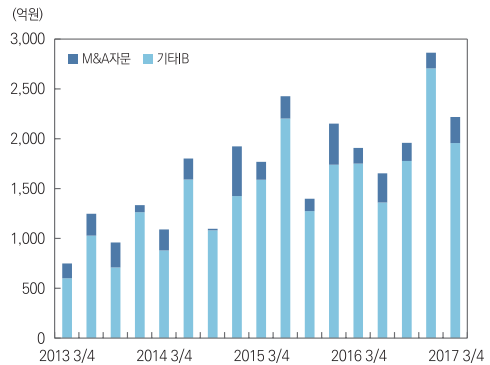
□ (투자은행) 2017년 3/4분기중 투자은행 관련 순수익은 4,556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5.7% 감소

- 인수 및 주선수수료는 1,63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9.5% 감소
 - 유상증자·국공채 및 금융채·기업어음 관련 인수 및 주선수수료는 전분기대비 19.3% 증가한 반면, 기업공개·회사채·외화증권 관련 수수료는 18.7% 감소
- M&A자문수수료는 26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67.5% 증가한 반면 기타IB 관련수수료는 1,94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7.1% 감소
 - 기타IB 관련수수료 중 구조조정 및 금융상담수수료가 전분기대비 30.2% 감소하고 지급보증료가 전분기대비 8.0% 감소

인수 및 주선수수료 추이



M&A자문 및 기타B 관련수수료 추이



주 : 1) M&A자문 = 매수합병증개수수료

2) 매수 및 합병수수료 = 매수합병증개수수료 + 평가수수료 + 구조조정 및 금융상담수수료 + 기타수수료, 기타B = 매수 및 합병수수료 - 매수합병증개수수료 + 지급보증료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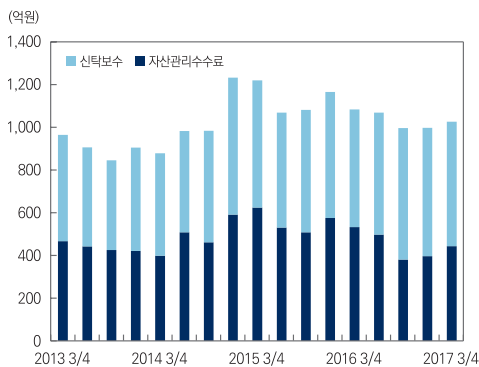
□ (자산관리 및 상품판매) 2017년 3/4분기중 자산관리와 상품판매 관련 순이익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

— 자산관리 순이익은 1,02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9% 증가

- 자산관리수수료는 445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1.8% 증가한 반면, 신탁보수는 58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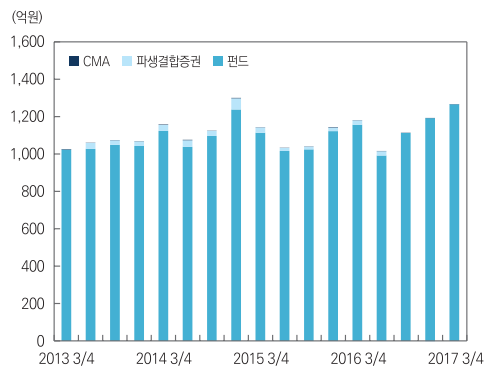
— 상품판매 순이익은 1,266억원으로 전분기대비 6.5%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품판매 확대에서 기인

자산관리 부문별 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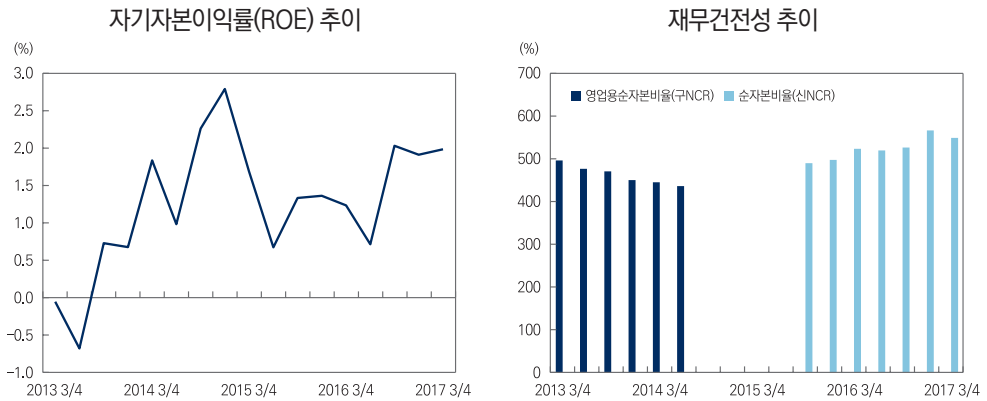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상품판매 부문별 순이익 추이



□ (수익성 및 건전성) 2017년 3/4분기중 증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지표(순자본비율)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7년 3/4분기 2.0%로 전분기대비 0.1%p 증가
- 평균 순자본비율은 동 기간중 549.6%로 전분기대비 17.6%p 감소



주 : 1) ROE는 분기별 수치

2) 순자본비율은 개별 기준, 2015년은 신NCR 조기적용 증권사들이 혼재하여 추세값에서 제외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02-3771-0639, shlee@kcmi.re.kr)

선임연구원 김규림 (02-3771-0684, kgyulim@kcmi.re.kr)

증권산업 주요 이슈: 국내 소형 증권사의 수익구조 변화와 시사점

- 최근 국내 소형 증권사의 순영업수익은 중대형 증권사와 달리 감소세가 뚜렷함
- 중대형 증권사의 순영업수익은 2017년 9.73조원으로 2010년 대비 15.7% 증가한 반면 소형 증권사의 경우 1.40조원으로 동기간 10.5% 감소
- 순영업수익을 부문별로 보면, 소형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 자산관리 및 상품판매, 자기매매 부문 순수익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IB 부문의 순수익은 크게 개선
- 중대형사와 달리 소형 증권사의 순수익은 IB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감소
 - 소형 증권사의 위탁매매 부문 순수익은 2010년 대비 40.0% 감소, 자산관리 및 상품판매와 자기매매 부문은 동기간 49.1%와 37.8% 감소
 - 반면 중대형사의 위탁매매 부문 순수익은 동기간 19.1% 감소하고, 자기매매 부문은 60.7% 증가
 - 소형 증권사의 IB 부문 순수익은 IB 시장의 성장으로 2010년 대비 127.7% 증가
 - 이는 소형사가 IB 부문에서 중대형사와의 경쟁에서 크게 뒤쳐지지 않은 결과로 보임

소형·중대형 증권사 업무별 순영업수익 추이

(단위: 조원)

	소형					중대형				
	순영업 수익	위탁	IB	자산관리· 상품판매	자기 매매	순영업 수익	위탁	IB	자산관리· 상품판매	자기 매매
2010	1.56	0.58	0.17	0.13	0.67	8.41	4.43	0.53	1.23	2.20
2011	1.63	0.70	0.19	0.12	0.60	8.27	4.88	0.53	1.10	1.82
2012	1.40	0.53	0.25	0.09	0.48	7.17	3.64	0.52	0.75	2.17
2013	1.14	0.44	0.22	0.07	0.37	6.43	3.21	0.54	0.77	1.81
2014	1.36	0.41	0.27	0.06	0.51	7.06	3.04	0.53	0.72	2.64
2015	1.50	0.51	0.25	0.06	0.56	8.96	4.01	0.83	0.81	3.00
2016	1.37	0.40	0.31	0.06	0.45	6.98	3.46	0.91	0.79	1.47
2017	1.40	0.35	0.38	0.07	0.42	9.73	3.58	1.28	0.78	3.53

주 : 1) 2010년 기준 자기자본 1~20위는 중대형, 21위 이하는 소형 증권사로 구분

2) 2017년 추정 당기순이익=(2017년 1사분기~3사분기 당기순이익)*(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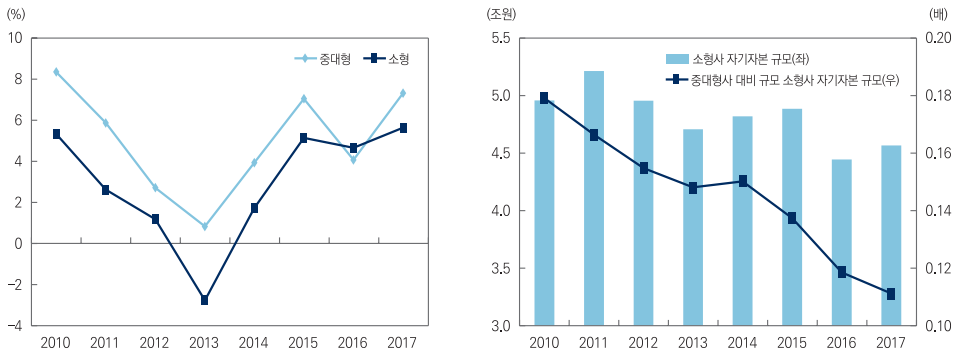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 최근 소형 증권사는 중대형사 대비 운영업수익의 감소에도 소폭 개선된 수익성을 보였는데, 이는 자본규모가 확대된 중대형사들과 달리 소형사들의 자본규모가 축소된 데 기인

— 중대형 증권사들의 전체 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소형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부 소형 증권사들의 퇴출 등에서 기인

- 중대형 증권사의 전체 자기자본은 2017년 3/4분기 41.1조원으로 2010년 대비 48.4% 증가한 반면 소형 증권사의 경우 4.6조원으로 동기간 7.9% 감소
- 분석기간 중 4개사가 폐업하고 2개사가 중대형사와 합병되어 소형 증권사의 전체 자기자본 규모가 축소

소형·중대형 증권사 ROE 및 자기자본 추이



주 : 1) 2010년 기준 자기자본 1~20위는 중대형, 21위 이하는 소형 증권사로 구분

2) 2017년 추정 당기순이익 = (2017년 1사분기~3사분기 당기순이익)*(4/3)

자료: 금융투자협회

□ 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자본규모와 운영업수익에서 모두 크게 축소되었으나 IB 시장에서는 유지하였는데, 이는 향후 소형사가 IB 부문에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소형 증권사는 브랜드가 요구되는 위탁매매와 자본력을 수반해야하는 자기매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제한적

- 소형 증권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자본규제와 장외파생관련 라이선스 제한 등의 규제도 소형 증권사가 자기매매 부문에서 수익을 구하기 어려운 영업 환경

— 소형 증권사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IB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 전략을 통한 효율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할 필요